**작은 일들을 무시하지 말라/ 브래드 저삭**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에게

굉장한 방법으로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평범한 사람'에게

일상의 작은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 브리타가 그러한 견해를 아주 잘 표현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굉장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며

평범하고 흔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일반적인 꿈을 통해서는 아니라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고 믿지만,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한다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믿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거나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믿는다.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땅에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나, 굶주린 까마귀 한 마리,

머리빗에 남아 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알고 계신다.

하물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겠는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또한 말씀하고 싶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다행히도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다.

-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 예수전도단

Tags

음성듣기 인도받기 양심